



더 나은 미래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다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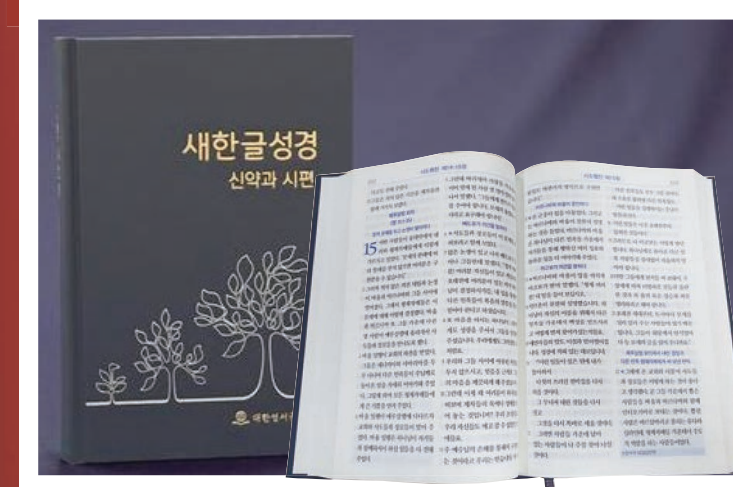
모든이에게 사랑과 소망을

한센

HANSEN

Vol. 109 2021

11.12



소중한 당신의 겨울이
따뜻하고 행복해지면
기쁘습니다!

02 인사말

희망의 메시지

● 한센 포커스

04 스페셜 리포트

제18회 한센인의 날

08 한센 리포트

- 한센인 합동결혼식
- 보건요원교육
- 낙동마을 치매예방교육
- 성심마을 배움행복마을교육
- 재생마을 치매예방교육
- 금성마을 문화복지사업
- 한센 가족 장수사진 촬영
- 서산시대, 이길용 회장 인터뷰 배포
- 「한센」 홈페이지 확인 안내
- 하반기 한센병 민간경상보조사업 현장점검
- 로고 슬로건 변경
- 임시 이사회 개최
- 한센가족보상 청구 신청 안내

● 한센 팀방

26 지부는 지금

- 총광 · 청원마을에 김장김치 전달
- 경기지부 사랑의 성품 기부 받아

28 유관단체 동정

- 한국IDEA협회
- (사)한국한센복지협회

30 한국한센역사속인물

아치볼드 그레이 플레처 선교사

● 한센 공감

34 소통하는 한센

- 국민권익위, 지자체와 손 맞잡아
- 이춘상 6·20 의거 기념비 건립
-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번역 · 발간

38 함께하는 한센

- 홀로 걷는 사람들
- 병원
- 인생의 허무
- 감사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44 한센이 만난 사람

김명철 한의사

● 한센 이모저모

49 정착마을 풍경

보성마을

50 정보 알리미

- 바른 자세가 보약이다
- 안구건조증 원인 및 예방법
- 과일에도 궁합이 있다

60 배움교실

- 요즘 이 책
- 이달의 사자성어
- 중국어 교실

62 독자들의 공간

- 날말퀴즈
- 한센계시판
- 후원자 모집



4



44

한센인과 함께 만드는 종합정보소식지 **한센**

제19권 제6호 통권 제109호

발행일 2021년 11·12월호 발행

발행·편집인 이길용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한센총연합회

※ 본 책자는 일반회계(국고지원)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주소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2층

전화 1566-2339 / 팩스 1566-2032

홈페이지 www.hansenkorea.org

이메일 hansen@hansenkorea.org

디자인&인쇄 성림디엔피

격월간 비매품



희망의 메시지

사랑하는 한센 가족, 후원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새해가 돌아옵니다. 항상 보내는 해는 아쉽고 다가오는 해는 설레기만 합니다.

지난 2021년은 정치, 사회, 경제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서 다사다난한 사건들로 가득하고 유난히 어려웠던 해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는 대한민국의 일상을 멈추게 하고 끝없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들은 답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무 탈 없이 지난 한 해의 여정을 달려올 수 있도록 큰 성원으로 총연합회를 지지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한

센 가족의 관심과 지지에 보답하고자 총연합회는 50년 노하우를 바탕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10월 한센인의 날 행사를 축소 개최하여 한센인 간 친목 교류 및 화합의 장을 제공하고, 정착마을에 직접 방문하여 한센 가족분들을 모시고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사진 촬영, 한센인 합동결혼식을 거행하여 한센인의 사회·심리적 재활 및 사회적 편견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비대면으로 보건요원교육을 실시하여 한센인의 건강관리를 돕는 요원을 양성하였고, 낙동마을, 재생마을 치매예

방교육과 성심마을 배움행복마을교육을 실시하여 한센 가족이 배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평생 학습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센 가족, 후원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 한센 가족은 고령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총연합회 회장으로서 한센 가족들의 현실을 방관하지 않고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 우리 총연합회의 특화된 복지와 인권 사업을 구축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어떻게 하면 한센 가족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다양한 고민을 해나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총연합회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께서 하나된 마음으로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셨고, 덕분에 총연합회는 더욱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2021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의 정성 하나하나 는 서로의 가슴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을 것이며, 이것은 우리가 더욱 발전해 나가는 가장 소중한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호랑이해를 맞이하여 더욱 힘차게 총연합회를 운영해 나가고 존경과 사랑이 우리들 마음속에 넘쳐나도록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피나가겠습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총연합회를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지나간 일을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바쁘게 지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호랑이의 용맹스러운 기세처럼 여러분에게 희망과 도약의 기운이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뜻 깊은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한국한센총연합회 회장 이길용

제18회 한센인의 날



우리 총연합회는 10월 28일(목) 11시 KT대전인재개발원 소강당에서 '제18회 한센인의 날'을 개최했다.

이길용 총연합회장을 비롯한 소수의 임직원 및 마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손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정부포상 및 감사패 수여와 기념사 등 최소한으로 동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2021년 동안 추진했던 사업 동영상을 시청하며 함께 앞으로 총연합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특히 한센인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시상식에서는 총연합회 지부장 및 마을대표를 역임하며 한센인들의 경제 재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경북지역 정착마을 한센인들의 복지실현에 크게 기여한 ▲ 김진국 성신마을(경북 성주군) 대표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으며, 한센인의 인권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몰심양면으로 노력한 ▲ 이태성 다운마을 운영위원장 ▲ 진성재 전라북도 익산시 지방농업주사 ▲ 손혜숙 양평군 보건소 지방간호주사 ▲ 이지현 동행복지회 회장 ▲ 김성직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팀장 등 총 5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아울러, 우리 총연합회에서는 김해시 지역 내 5개 한센인 정착마을 한센인들의 복지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실시하여 한센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헌신해 온 ▲ 박은희 김해시의원과 전남지역 정착마을에 재능기부를 통한 마을 전기 점검 및 교체 봉사활동으로 주거 환경 개선에 공헌한 ▲ 장창호 (주)우림전력 대표이사에게 총연합회 회장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길용 총연합회장은 “한센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많은 국민들 앞에서 수상자들의 노고를 널리 알리고 감사와 축하를 드리고 싶었으나 약식으로 수여식을 개최함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며, 수상자 여러분이 각자의 분야에서 보여준 활동과 헌신은 한센 가족들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간을 헤쳐 나가는데 큰 힘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한센인의 날 행사를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감으로써 한센 가족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센인의 날’ 행사는 한센인 및 국가한센사업을 홍보하고, 한센인 간 친목 교류 및 화합의 장 제공, 한센인의 삶과 역사 재조명 및 한센 가족의 인권과 복지 증진에 공헌한 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 인사말을 전하는 이길용 총연합회장



▲ 국무총리 표창 수여



▲ 이길용 총연합회장(왼쪽)과 김진국 대표



▲ (왼쪽부터) 김성직 팀장, 이길용 회장, 진성재 지방농업주사



▲ 2021년 추진사업 동영상 시청



▲ (왼쪽부터) 박은희 김해시의원, 이길용 총연합회장, 장창호 (췌)우림전력 대표이사



▲ 가수 정준의 축하 공연

한센인 합동결혼식, 다섯 쌍 백년가약



‘2021 한센인 합동결혼식’이 지난 11월 9일 더모임(서울 동대문구)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선정된 신랑·신부는 결혼식장 대여료, 웨딩사진과 앨범, 메이크업 및 의상 등 결혼 비용 일체를 지원받았다.

이 날 치러진 합동결혼식에는 이길용 회장을 비롯해 총연합회 임직원, 주요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5쌍 한센인 부부의 행복한 출발을 함께 했다. 특히 정상권 총연합회 고문이 주례를 맡아 한센인 부부의 앞날을 축복했다.

이길용 총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결혼식을 통해 각 가정이 새롭게 힘찬 삶을 살아가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한센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결혼식에서 신랑 A씨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며 우리를 위해 이렇게 신경써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한센인 합동결혼식은 경제적 곤경,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한센 가족의 욕구 부응과 사회적 복지 수용을 위한 사업으로, 매년 질병관리청에서 지원받아 총연합회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합동결혼식을 통해 한센인의 사회·심리적 재할 및 사회적 편견 해소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총연합회는 앞으로도 여러 사정으로 예식을 올리지 못한 한센 가족들을 위해 합동결혼식을 계속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요원교육 동영상 및 책자 배포



▲ 2021년 보건요원교육 책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 내용은 크게 ▲ 한센병의 치료, 약 복용 바로알기(강의자 : 김종필 한국한센복지협회 연구원장) ▲ 고령 한센인의 건강관리(강의자 : 윤민선 한국한센복지협회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센인에게 건강정보를 전달해 노후 생활의 질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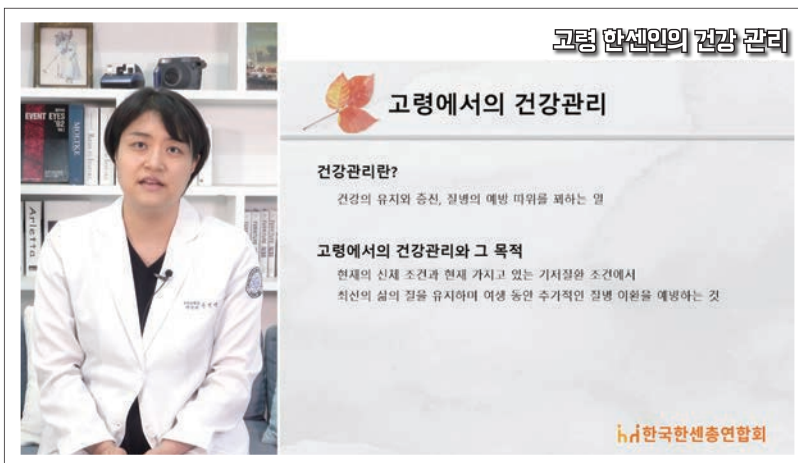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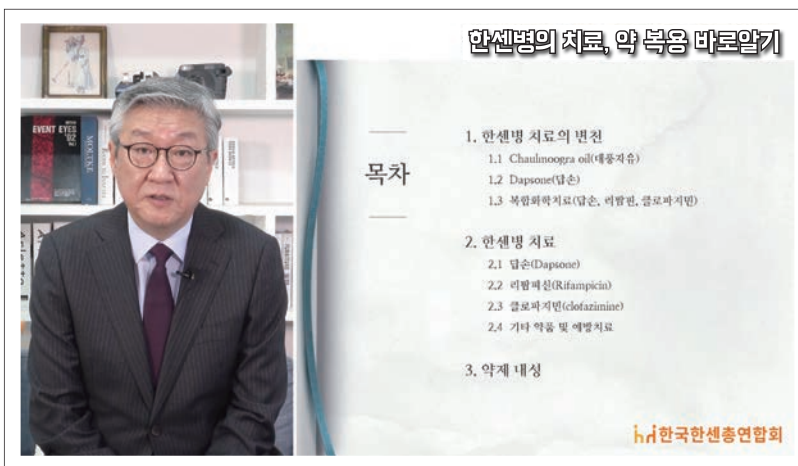
우리 총연합회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 교육이 쉽지 않고 교육생 및 임직원들의 안전을 감안해 한센인 정착마을 내 보건요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를 담은 '비대면 보건요원 교육' 책자와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했다.

장애 및 고령의 한센인이 거주하는 정착마을의 경우 지역적 특성(도시 외각에 위치)상 병원의 접근성이 제한적으로 정착마을 내 한센인을 돌볼 수 있는 보건요원의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보건요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건강증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정착마을 한센인의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질병관리청의 지원을 받아 보건요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교육 동영상을 홈페이지, 유튜브에 게시하고 총연합회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해당 동영상을 배포하고, 교육책자는 정착마을 보건요원에게 발송되었다.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없는 비대면 교육으로 구성하여 수시로 동영상 시청이 가능하고, 자세히 복습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하였다.



▲ 교육 내용별 강의 영상 캡처



▲ 카카오톡을 통해 교육 안내 및 동영상 배포



◀ 지금 QR코드로 총연합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여 교육 동영상을 확인해보세요!

낙동마을, 치매예방교육 실시



▲ 낙동마을 치매예방교육 현장

우리 총연합회는 지난 11월 2일(화)부터 12월 10일(금)까지 낙동마을(경남 김해시, 대표 남성은)에서 교육생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전문 강사가 정착마을에 직접 방문해 진행하였으며, 인지학습과 뇌운동 체조, 보드게임, 그림그리기 등 치매예방을 위한 다채로운 인지 강화 활동으로 구성되어 약 두 달 간(15회기) 낙동마을

교육생들에게 제공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한센인은 “건강이 안 좋아 외출이 어려운데 방문 교육을 해주니 고맙고, 우울한 마음도 환기가 된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한센인은 높은 사회 고립도로 우울과 치매에 취약해 치매예방교육 참여가 누구보다 필요하기에 우리 총연합회에서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해 건강한 한센인의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성심마을, 배움행복마을교육 실시



우리 총연합회는 지난 10월 27일(수)부터 12월 23일(목)까지 약 두 달간 성심마을(경북 상주시, 대표 김창일)에서 교육생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배움행복마을교육을 실시했다.

배움행복마을교육은 교육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정착마을 거주 한센인들을 위해 실시되는 맞춤형 평생교육 사업으로, 한센인들의 자아실현을 달성하고 자존감 향상 및 사회복귀를 위한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 ▲생활 속 놀이 교육 ▲노인 건강 프로그램 ▲소통과 나눔을 위한 프로그램 ▲생활 소품 만들기 교육 ▲성심마을 음악교실 등으로 각 분야별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신체·정신 건강 증진 및 문화·여가 활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알찬 배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구성했다.

이길용 총연합회장은 “앞으로도 한센인들이 배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평생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재생마을, 치매예방교육 실시



▲ 재생마을 치매예방교육 개강식

림그리기 등 치매예방을 위한 다채로운 인지 교육을 구성하여 약 한 달 간(15회기) 재생마을 교육생들에게 제공하였다.

우리 총연합회는 지난 11월 10일(수)부터 12월 8일(수)까지 재생마을(전남 함평군, 대표 정복열)에서 교육생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치매예방교육 진행했다.

치매예방교육은 전문 강사가 정착마을을 방문하여 인지 학습과 뇌운동체조, 보드게임, 그



이길용 총연합회장은 “체조와 운동 등 다양한 치매 예방교육을 통해 치매 걱정 없고, 노년이 행복한 삶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재생마을 한센인 어르신들이 치매 관련 정보를 얻고, 꾸준히 건강 관리를 해서 치매에 대한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성마을, 문화복지사업 실시

우리 총연합회는 지난 11월 30일(화) 한센인 정착마을인 금성마을(경북 의성군, 대표 조시원)에서 ‘찾아가는 문화 복지’ 사업을 실시했다.

질병관리청의 지원을 받아 우리 총연합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문화 복지’ 사업은 장애 및 고령화로 외출 등이 제한되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한센인 정착마을에 직접 찾아가 문화 공연을 펼치는 사업으로 비한센인과의 문화 예술 활동에 대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한센인에게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전문 사회자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공연은 품바 공연, 마술 공연 등 한센 가족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공연 등이 펼쳐져, 정착마을에서 제한된 생활을 하는 한센 가족들이 모처럼 즐겁게 공연을 즐겼다.

이길용 총연합회장은 “찾아가는 문화 복지 사업은 한센 가족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 한센인 정착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을 만들어 한센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착마을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출입자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되었다.



▲ 마술 공연



▲ 품바 공연

한센 가족 '장수사진' 촬영



우리 총연합회는 11월 29일(월)부터 65세 이상 한센인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사진 촬영 사업인 '우리마을 행복사진관 2차'를 실시했다. 보성마을(전북 남원시, 대표 정홍섭)을 시작으로 2차는 총 7개 마을, 한센인 및 배우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질병관리청 지원을 받아 총연합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장수사진 촬영 사업은 정착마을에 직접 찾아가 고령의 한센인에게 메이크업 및 헤어, 의상, 장수사진 촬영, 인화 및 배송 등 장수 사진 서비스 일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이 사업은 건강과 장수 기원의 의미를 담아 촬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과거의 모진 차별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을 억척스럽게 일궈 낸 주인공이지만 그 과정에서 노후에 대한 대비 없이 노년을 맞이하게 된 한센 가족의 노후 준비를 도와 드려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 체온 체크 및 출입자 명부 작성

이길용 총연합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정착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 고령의 한센 가족에게 노후 준비의 기회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센인 가족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총연합회는 체온 체크,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장수사진 촬영을 진행했다.



▲ 헤어드라이어로 머리에 힘도 주고~



▲ 촬영 직전 립스틱으로 마무리~



▲ 거동이 불편한 촬영자는 자택에서 촬영



▲ 단체 사진 촬영으로 마무리~

서산시대, 이길용 총연합회장 인터뷰 보도

“충남도, 40여 가구 남은 한센인 정착마을 보듬어야”

⑤

복지사각지대...충남, 한센인 정착마을 두곳 남아

한두용 기자 | 승인 2021.10.27 20:44 | 댓글 0

이길용 회장 “충남도, 40여 가구 남은 한센인 정착마을 보듬어야”

【충남도 기획】 사라지는 마을, 한센인 정착마을을 가다



한국한센총연합회 이길용 회장

한센인 정착촌의 경우 대부분 석면을 사용한 폐축사, 폐가 등이 섞여 있어 도무관심과 과다한 비용 등으로 방치되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 해 말부터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68개 지방자치단체, 한국한센총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82개소 한센인 정착촌의 석면건축물 방지 현황 등 생활환경과 주민복지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 자원에 의하면 현재 국내에는 총 2,505명의 한센인이 82개 마을에 정착해 살고 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80.5세로 고령이고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80.5%)로, 유해물질과 악취 등에 노출된 열악한 주거환경과 난방 등 기본적인 생활지원 시스템이 취약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에 한국한센총연합회 이길용 회장을 만나 한센인 정착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 편집자 주



지난 10월 20일(수) 이길용 총연합회장은 서산시대(발행인 김기진)와 인터뷰를 실시했으며, 이와 관련된 인터뷰가 10월 27일(수) 서산시대 지면 및 인터넷 뉴스에 송출됐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총연합회의 추진 사업 및 성과, 한센인 정착마을의 탄생 배경과 그간의 변화 과정, 한센인 입장에서 정부의 격리정책에 대한 문제점, 정착마을 축산업 붕괴의 원인, 정착마을 복지행정 서비스 실태, 한센인 2세 등 가족들의 2차 피해에 대한 해결책 등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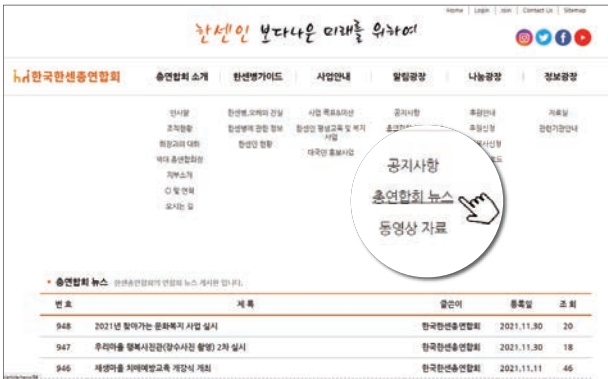
이번 인터뷰는 충청남도 지역언론지원사업으로 인권침해로 인하여 피해 받은 한센인의 인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제도적 노력의 실제 효과를 분석하고, 동시에 그러한 제도적 노

총연합회 종합정보지「한센」,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우리 총연합회 종합정보지「한센」을 인터넷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7·8월호(통권 제107호)부터 총연합회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였다.

PDF형식으로 업로드 된 「한센」은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이 누구나 무료로(회원가입 필요 없음) PC·태블릿·휴대전화 등에서 볼 수 있고 내려 받기도 가능하다.



우리 총연합회는 홈페이지에 「한센」을 게재함으로써 보급률 높이고, 일반 국민들의 한센인에 대한 편견해소 및 인식제고에 기여하며 한센인 역사, 문학, 정책 등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센」PDF는 총연합회 홈페이지(www.hansenkorea.org) 알림광장의 총연합회 뉴스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센」은 1년 6회 제작(작수달 발간)하며 정부, 지자체, 정착마을, 한센유관 단체, 후원자 등에 발송되어지고 있다.



◀ QR코드를 스캔하시어
총연합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세요!

2021년 하반기 한센병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 및 현장점검 실시



질병관리청

(출처: 질병관리청)

지난 11월 23일(화) 2021년 하반기 한센병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 및 현장점검이 실시되었다.

동 점검은 국가한센병관리사업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센병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의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추진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사업방향 및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질을 높이고자 질병관리청의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 사업 운영 현황 ▲ 사업 실적 ▲ 예산 사용 내역 ▲ 운영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집중 점검했다.

로고 슬로건 변경



Mapping a better future...

사단법인

한국한센총연합회

THE KOREAN FEDERATION of
HANSEN ASSOCIATIONS

우리 총연합회는 고착화된 기업 및 단체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측면에서 기업들이 로고 및 슬로건을 연말 또는 연초에 변경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공식 로고 내 슬로건을 변경했다.

새 슬로건은 'Mapping a better future'로 기존 총연합회의 정통성을 이으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만들어 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 총연합회는 새 슬로건을 바탕으로 '한센인 인권 증진 및 복지 개선' 위해 힘차게 2022년을 재도약 하고자 한다.

임시 이사회 개최

우리 총연합회는 지난 12월 17일(금) 오전 11시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이사회에는 이길용 총연합회장을 비롯한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안건으로 ▲ 한센인의 날 결과 보고 등 주요 안건들이 상정되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길용 총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로 그동안 대면으로 만나지 못해 여러 가지 궁금하신 사항 등이 있으실 거 같아 힘들게 자리를 마련했으니 궁금하신 사항이나 총연합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이사회는 손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체온 체크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세요!”

실내	· 상시 마스크 착용
실외	·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 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마스크, 이렇게 착용해 주세요!”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착용 가능한 마스크의 종류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및 수술용 마스크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벨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한번의 미소로 한센인에게 더 가까이

한센인들은 핍박과 차별 속에 살아왔습니다.

한센병이 전염성이 높고 불치병, 유전병이라는 잘못된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노인이 되어 몸과 마음의 상처를 가지신 한센인들에게 먼저 따뜻한 미소를 건네는 건
그분들의 삶에 비해 훨씬 쉬운 일 아닐까요?

정 예 린 한센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한 번의 미소로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한 번의 미소로 한센인에게 더 가까이'라는 문구와 미소 짓는 사진을 넣어 디자인 했습니다. 또 세부 설명에는 한센인에 대한 차별의 역사와 대표적인 편견을 넣어 사람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하고 한센인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권유했습니다.

한센 가족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청구 안내

1. 일본 한센 가족들에 대한 보상 판결

- 일본 정부는 과거 일제강점기하 소록도에 강제격리·노동을 당한 한센피해자들에게 일본 한센보상법을 제정하여 보상을 실시한 바 있음
- 이후 한센인 가족들이 일본 구마모토 지방법원에 제기한 보상청구소송 또한 2019. 6. 28. 승소 판결하였고, 이에 일본 정부는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 취지에 따라 2019. 11. 15. 한센병원환자가족보상법을 제정하여 한센인 가족들에게 보상을 실시하고 있음
- 위 한센가족보상법은 격리 정책으로 인한 한센 가족 피해를 인정하고 사죄·반성을 표하면서, 한센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고, 그 명예회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한다고 밝힘

2. 보상 청구의 내용

- 보상금은 친자, 배우자 180만엔, 형제자매 130만엔 등
- 청구시한은 2024. 11. 24.까지(한시법)

3. 청구자 및 원환자

- 가족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분(이하 청구자)은 일제강점기하(1945. 8. 15.)에 한센병이 발병된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이하 원환자)를 둔 가족
- 청구자는 1945. 8. 15. 이전 출생자로서 생존하고, 한센병 발병여부 불문

- 원환자는 1945. 8. 15. 이전 발병자로서 소록도 입소 및 사망 여부 불문
- 원환자가 일본으로부터 소록도 보상을 받은 경우도 가능
- 사실혼 배우자도 해당하나, 혼인일시는 1945. 8. 15. 이전이어야 함

4. 청구시 필요 서류 (예시)

- ① 원환자 일제하 한센병 발병사실 증명서류 : 한센등록(관리)카드, 한센사업기록표, 소록도 입소증명서, 교적부, 세례명부, 소록도 보상결정문 등
- ② 청구자가 원환자의 가족임을 입증하는 서류 : 일제 또는 해방후 구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③ 청구자가 1945. 8. 15. 이전 출생자로 생존한 사실 : 주민등록 초본
- ④ 청구자 은행계좌 사본
- ⑤ 기타 입증서류

5. 안내 및 문의

- 현재 한국 변호사들은 ‘한센가족보상청구변호단’을 구성(단장 조영선 변호사)하여 일본 변호단과 업무협의를 하고 있음
- 2021. 9. 10. 기준 125명(1차 62명, 2차 63명)을 일본에 송부하였고, 조만간 첫 보상결정이 날 예정
- 한센가족보상 청구는 원환자(한센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사회와 국가로부터 차별과 편견을 받아왔던 것에 대한 사죄이자 보상
-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조영선 변호사, 이정일 변호사로 연락 요망
전화 : 02-3482-6195
팩스 : 02-3482-8422

한센가족보상청구변호단

청원·충광마을에 전해진 사랑의 김장 김치



▲ 김장 김치를 전달받고 있는 박행남 충광마을 대표(앞줄 오른쪽)

지난 11월 6일(토) 서울·중부지부 산하 청원·충광마을에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 1, 2, 3 지역 주관 하에 회원들이 합동으로 담근 김장 김치가 전달되었다.

청원마을 이성규 대표, 충광마을 박행남 대표는 주민을 대표하여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에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염원하는 소망과 함께 감사한 마음을 회원들에게 전하였다.

한편,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는 2014년부터 한센인 정착마을에 김장 나눔, 물품 기부 등 지속적인 후원 사업을 통해 따뜻한 온정이 담긴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경기지부, 사랑의 성품 기부 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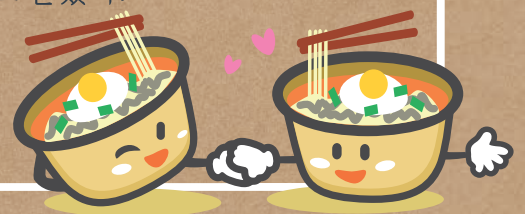
▲ 정춘식 성생마을 대표, 최광현 총연합회 경기지부장, 최원영 한국한센복지협회 경기·인천지부 본부장(왼쪽 두 번째부터)

우리 총연합회 경기지부는 2021년 12월 7일(화) 한국한센복지협회 경기·인천지부(본부장 최원영)로부터 사랑의 성품 ‘라면 287박스’를 기증 받았다. 최광현 총연합회 경기지부장, 최원영 본부장, 정춘식 성생마을(경기도 남양주시)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기증식을 진행했다.

최광현 총연합회 경기지부장은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해 주신 한국한센복지협회 경기·인천지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도움이 필요한 한센 가족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최원영 본부장은 “겨울 추위에 코로나19까지 더해 몸과 마음이 지친 한센 가족들에게 사랑의 라면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한센 가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앞으로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총연합회 경기지부는 전달받은 라면을 경기지부 산하 정착마을에 전달하였다.



한국IDEA협회

2021년 선교보고 및 후원의 날 행사 개최



한국IDEA협회(대표회장 정상권)는 지난 11월 11일(목) 오후 3시 여전도회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2021년도 선교보고 및 후원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 후원자들과 유관 기관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해 어려운 환경 속에 소외받고 차별받는 지구촌 한센인들과 극빈층을 돕기 위한 선교 후원 사역에 동참하며 격려와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정상권 회장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후원자들의 사랑으로 1년 동안 필리핀, 네팔, 인도, 방글라데시의 한센인과 극빈층을 돕기 위한 마스크 지원 및 생필품 전달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올해 ‘국제IDEA 봉사상’ 선교부문에는 선진교회 황용규 목사와 부회장 정서기 장로, 사회복지 부문에는 부회장 이영구 장로가 수상했다.

(※ 본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었습니다.)

강화도 우리마을 방문



▲ 정영란 사무국장, 김성수 주교, 정상권 대표회장(왼쪽부터)

정상권 대표회장은 11월 18일(목) ‘강화도 우리마을’을 방문하여 우리마을을 총장 김성수 주교와 원장 이대성 신부를 만나 오랜 기간 한국IDEA협회 한센인 선교 사업에 큰 힘을 주고 있는 김성수 주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정상권 회장은 김성수 주교의 안내로 사업장 시설을 둘러보며 최근 시작한 친환경 커피박 재활용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김성수 주교는 “친환경 커피박 재활용 사업은 천연 유기성 자원 활용으로 환경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커피박 연필은 개인 또는 단체 행사 홍보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향후 화분, 파벽돌까지 생산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사)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 마산 신청사 상량식 개최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 마산 신청사의 대들보를 올리는 행사가 열렸다.

한국한센복지협회는 11월 23일 울산·경남지부 마산 신청사 부지에서 운영득 협회 사무총장, 진경모 울산·경남지부 본부장 등 본·지부 직원과 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상량식(上梁式)을 개최했다.

상량식은 공사 진행 중 재난을 막기 위해 지신과 택신에게 올리는 제사로, 현대에 들어서는 한옥의 마룻대에 해당하는 대들보를 올릴 때 이를 기념하고자 연다.

운영득 협회 사무총장은 “울산·경남지부 직원들과 공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남은 공사가 차질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의료기사반 교육 실시



한국한센복지협회는 11월 15일(월)부터 16일(화)까지 2일간 협회 본부 교육관에서 의료기사반 교육을 진행했다.

협회 본·지부에서 근무하는 임상병리사·물리치료사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교육은 한센병 개요, 한센병 최근 동향 및 주요사업, 검사실 직무교육, 한센병의 재활, 공공보건의료사업 방향 등 협회 사업에 관련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역사속 인물

선물처럼 한센인에게 찾아온 플레처 선교사



1909년 뉴욕선교대회에서 만난 일곱명의 선교사 일행이 한국으로 떠났다. 그 중 유일한 남성이었던 플레처는 당초 원주로 배속되었다가, 1910년 대구로 옮겨왔다. 그리고 과로로 허약해진 동산기독병원 초대 원장인 존슨을 대신해 의료 선교 책임자가 되었다.

의료선교사로서 플레처가 가장 마음을 썼던 대상은 한센인들이었다. 어느 겨울, 발에 심한 화상을 입고 찾아온 한센인 소년들을 진료한 일이 계기였다.

1913년 대구를 방문한 대영나환자구료회 창설자 베일리 부부의 도움으로 대구애락원이 개원하며 동산의료원의 한센인 사역은 큰 힘을 얻는다. 무려 2,000명을 수용했던 대구애락원에서는 환자 치료는 물론 자립과 재활을 위한 기반들까지 갖추었다. 플레처는 시설 확충을 위해 사재마저 아낌없이 바치는 열성으로 대구애락원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이 모습에 감명을 받은 일본 황실은 그에게 1928년 휘장을 수여하며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플레처 원장의 생애

아치볼드 그레이 플레처(Archibald Gray Fletcher)는 1882년 8월 16일 캐나다 온타리오 플레처에서 출생했다. 그는 캐나다의 채텀고등학교, 토론토의 '영미직업전문대학(British-american Business college)'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와 아이오와주의 '수시립의과대학(Sioux City Medical College)'을 졸업했으며 1905년 시카고 내외과 의과대학(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을 졸업했다. 졸업할 당시 한 교수는 "플레처는 모범생으로 우등상을 받고 졸업했다"라고 말했다. 우수한 성적으로 의대를 졸업한 뒤 2년간 네브래스카주 오차드에서 개인 병원을 2년간 운영하기도 했지만, 1907년 7월 해외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심하고 선교부에 해외 파견 신청서를 제출했다.



▲ 플레처 원장의 젊은 시절

플레처는 스코틀랜드 혈통이다. 부모는 장로교회에 다녔고 선조들도 대대로 교회에 다녔다. 플레처는 일찍 부모를 잃었지만 캐나다와 미국 아이오와주에 사는 친척들이 그를 도와주고 기독교의 감화를 주었다.

그는 의학적으로나 영적으로 선교 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해 그의 성공적인 개업과 수입을 포기하고 아이오와주에 있는 ‘수시립사마리탄병원(Sioux City Samaritan Hospital)’에 들어갔다. 여기서 수련의 사로서 무보수로 1년 이상을 봉사했는데 이때 그는 외과 치료와 병원 운영의 경험을 쌓았다. 그리고 두 개의 성서연구반에서 성경을 가르쳤고 기독교면려회 C.E(교회 내 청년 전도단체) 활동에도 참여했다.

해외선교부는 1908년 3월 2일자로 플레처를 해외 선교사로 임명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21일 한국 선교지부에 발령을 냈다. 선교 현장에 도착한 그는 대구 의료사업의 책임을 맡았으며 5년을 근무한 다음 1914년 안식년 휴가를 얻었다. 이 기간 중 런던에 간 그는 ‘런던열대의학교(London School of Tropical Medicine)’에서 3개월간의 대학원 과정을 이수했다. 플레처 원장 시절 서무과장을 지낸 이병화 장로는 “플레처는 8척 자신의 키에 광채가 날 정도로 부리부리한 눈을 가지고 있어 보는 사람은 누구나 압도당했다”라고 그를 회상했다.

플레처 원장의 부임

플레처는 1910년 가을, 동산기독병원 초대 원장 존슨이 건강문제로 사임한 후 그의 후임자로 원장에 취임했다. 그의 우리말 이름은 별의추, 별의취, 별이취 등 여러 가지로 기록되고 있으나 ‘별리추’가 맞는 말이다. 한자를 풀이하면 자라 별(鰲), 떠날 리(離), 웅덩이 추(湫)로 이어진다.

그는 1911년부터 1941년까지 재임했다.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후 적성 국가 인물로 분류되어 강제 추방을 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플레처의 원장 재임 기간은 한일합병 기간과 거의 비슷하며 그의 재임 기간에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많았다. 그러나 플레처는 전시 체제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로지 동산기독병원을 발전시키는 데 전념하여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겼다.

진료소 증축과 검사실 운영

플레처 원장이 취임한 이후 의료사업은 꾸준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연간 1,000명의 입원환자와 5,000명의 외래환자를 치료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환자증가에 따라 1914년에는 3,000달러 예산으로 외래진료소를 신축했다. 1927년 9월 이 건물에 준공, 입주하면서 병원 운영 면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종래의 단과병원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중요 진료 과목을 독립 운영하는 종합병원 체제로 전환했다. 또, 이 시기부터 미국인 의료 선교사만의 독주 시대는 끝나고 한국인 의사 여러 명이 중요 부서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

손인식은 내과장에, 김용석은 안이비인후과장에, 그리고 김재명은 외과과장에 각각 부임했다. 그리고 병원 안에는 병리검사실, X-선 검사실 등 두개의 검사실을 설치하고 필요한 검사를 실시했다. 1927년에는 병리검사실을 이용하여 960회의 혈액 검사화 4,000건 이상의 각종 검사를 실시했다. 대구 시내 다른 병원의 의사들도 동산기독병원에 와서 검사실을 이용하며 실습과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구애락원 역사의 시작

대구동산병원의 설립자인 존슨은 1909년 6월 병원 근처 선교지부 구내에 초가 1채를 매입하여 한센인 10명을 수용하여 한센인요양사업을 시작했다. 존슨은 1910년 가을 건강상의 이유로 동산기독병원을 사직하고 그 후임으로 플레처가 부임하여 이 사업을 크게 발전시켜 나갔다. 당시에 한센인을 수용 치료하는 시설은 제중원 근처에 초가건물 1동뿐이었다. 이곳에 10명의 환자가 머물렀다. 이후 플레처는 한센인이 거리에서 음식을 구걸하는 것을 본 뒤, 영구 대영나병자구료회에 호소해 받은 기금으로 1913년 지금의 대구애락원의 시초인 대구나병원을 설립했다. 1913년 플레처는 영국나환자선교회 후원으로 기존의 수용소를 수리하고 면모를 일신하여 나환자병원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 후 1915년 4월 플레처는 영국나환자선교회의 지원금을 받아 현 위치인 서구 내당동 12-37번지에 새 요양원 부지를 매입하여 1917년 6월 남녀 병동과 진료실, 예배당, 창고 등을 건립하여 이전했다.

현재의 대구애락원은 1916년 부지(13만㎡)를 확보하면서 건립된 것이다. 시설 중앙에는 교회를 세우고 그 주변에 환자 숙소를 배치했다. 원생 수는 80명에 이르렀다. 1936년에는 원생수가 662명에 육박하는 영남지역에서 가장 큰 한센인 보호시설이었다. 1952년 플레처가 미국에 돌아갈 무렵에는 원생수가 1,161명에 이르렀다.



▲ 플레처 선교사가 한센인들을 위해 건립한 대구애락원의 초창기 모습

설립된 지 100년이 지난 현재 대구애락원은 환자가 급격히 줄었지만, 시설이용자는 예전 식당, 목욕 시설, 숙소 등 일부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다수의 시설은 종적을 감췄지만 새로운 공간으로 변모한 곳도 있다. 과거 애락의원이 있던 곳은 원생이 사용하던 선풍기, 전화기, 점자용 성경과 당시 환자를 치료했던 진료기 등을 전시해 놓는 사료관으로 리모델링됐다.

자료 제공 : 메디시티대구, 대구동산병원

한센
공감

소통하는 한센

국민권익위, 한센인 정착마을 환경·복지 개선 위해 지자체와 손 맞잡아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2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한센인 정착마을 관할 54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센인 정착마을의 환경·복지 개선대책을 공유하고 확산했다.



▲ 한센인 정착마을 환경 및 복지 개선 지방자치단체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10월 정부의 정책으로 41년 이상 소외된 삶을 살아온 경주시 한센인 정착마을(희망마을) 환경·복지 문제를 조정으로 해결했다. 이를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0월까지 전국 82개 한센인 정착마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한센인 정착마을 환경·복지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한센인 정착마을은 일제강점기 이후 1960년대에 걸쳐 정부의 격리정책 등으로 형성됐다. 현재 마을에 거주중인 한센인들은 평균 80.5세로 고령이고, 발암물질인 40년 이상 노후화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의 폐축사에 노출되는 등 유해한 환경 속에 생활하고 있다.



▲ 진주 소아마을 폐축사

환경개선 대책이 시급함에도 한센인은 기초수급자가 80.5%에 이르러 본인부담으로는 정비가 불가능하고 국가나 지자체의 관심도 미미했다. 폐축사 방치 원인을 살펴보면, 국비지원 제도를 알지 못한 경우가 23개소로 가장 많고, 거창 동산마을(24가구)처럼 국비지원 조건인 30가구에 미달하여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6개소로 나타났다.

〈참고〉 국비지원제도 미이용 등 정착마을별 폐건축물 방치 원인

	폐축사 등 폐건축물 방치 정착마을	마을 수(36개)
제도 미인지	신생, 보성, 현애, 계명마을 등	23
조건 미달	동산, 영천, 성자, 경호마을 등	6
지원확대 요청	칠곡, 성진, 산성 마을 등	4
지원신청 대기 중	총광, 희망, 양지마을 등	3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정비) 등 국비지원 관련 제도나 지침을 안내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마을 환경정비 모범사례로 의성군 도경마을과 익산시의 환경개선 사례를 공유했다.

- ※ 의성군 금성마을 : 76동의 폐축사와 14동의 폐가 건물이 수년 간 흉물스럽게 방치됨. 올해 의성군은 마을환경 개선을 위해 국비지원 없이 군비 12억 원을 투입하여 폐축사, 빈집 철거 등 정비 사업을 추진
- ※ 익산시 환경개선 : 현업·폐업축사를 매입하고 바이오순환림을 조성, 생태복원 등 추진

자료 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이춘상 6·20 의거 기념비 건립

“너는 환자들에게 못된 짓을 많이 하였으니 내 칼을 받아라!”



소록도 중앙공원에 ‘제2의 안중근’이라 평가받는 이춘상 선생 6·20 의거 기념조형물의 설치 작업이 지난 10월 27일(수)에 완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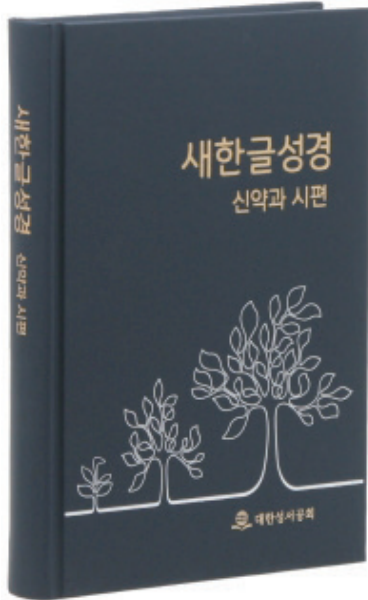
이춘상 선생 6·20의거 기념비 건립 참여 단체는 우리 총연합회, 이춘상기념사업회를 비롯하여 소록도주민자치회, 한센인권변호인단, 필리핀

소록도유니재단, 한벗재단, (사)함께하는빛, (사)참길복지, 참길회이다. 기념비 설계는 6·20의거의 역사적 의미에 공감한 홍성담 화백이 글씨는 원광대 여태명 교수가 맡았다. 여태명 교수는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 기념표지석 글씨를 쓴 서예가로도 유명하다.

기념비 건립을 통해 일제강점기 소록도에 수용된 조선인 한센병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항의하며 일본인 책임자를 살해한 이춘상(1915~1943) 선생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보태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번역·발간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이 지난 11월 말 출간됐다. (재)대한성서공회(대표 이정익) 측은 “〈새한글성경〉은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새로운 표현으로 번역한 성경”이라고 소개했다.

그동안 성서 속 부정적으로 표기된 ‘한센인(병)’ 용어는 ‘심한 피부병 앓는 사람’으로 개정되어 한센인의 인권이 신장되고 한센인이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총연합회는 10년 이상 한센 관련 용어 개정을 강력히 성서공회에 요청해 왔고 그간 수차례 성서공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성서 속의 한센인(병)에 대한 용어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길용 총연합회장은 “한센인들의 평균 연령이 약 80세로 점점 고령화되는 추세에 성서 속 한센 관련 용어가 조속히 개정되어, 한센인들의 인권 신장이 이루어지고 한센인 차별과 편견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대한성서공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성서공회는 지난 2011년 9월 이사회의 결정으로 새 번역을 결의, 그해 12월 ‘성경번역연구위원회’가 조직돼 번역 원칙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1년 동안의 번역 원칙 연구를 거쳐, 2012년 12월부터 각 교단 40대 젊은 성서학자들과 국어학자들이 번역 작업을 시작해 약 9년여 만에 나오게 됐다.



홀로 걷는 사람들

박 우 택 서울·중부지부장

동지설달 긴긴밤 잠 못 이루고
외로움이 더해가는 인생의 끝자락
‘질병’이라는 아픔을 안고
홀로 걷는 사람들 중에 내가 있네

‘운명’이라 체념하고
내 스스로 편견 속에 갇혀
몸부림치며 살아 왔네

‘밝은 세상’ 만났으니
이제 딱지는 떼고
더불어 함께 손에 손잡고 웃으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

작품 해설 필자(박우택 서울·중부지부장) 젊은 시절 예기치 못한 한센병으로 고된 외로움과 괴로움에 시달렸지만, 앞으로 다가올 인생에는 스스로 세상의 편견을 이겨내고 가족, 친구와 함께 즐거운 인생을 보내고자 하는 마음을 시에 내포시켰다.

병원

신재문 영락마을 대표

몸 아파 찾아간 병원
많은 사람 병마 안고 찾아와
건강 찾기를 소망하네

모든 이들 건강한데
인생 연약해
병원 없이 못사는 현실

왔다 가야할 가냘픈 우리
먼저 가고 나중 가는 거리는 있지만
가는 길은 한 길이라네

세월 따라 가는 인생
시간 따라 즐기며
후회 없이 살고 싶네

무거운 병마 막다른 곳에서
싸우다 지쳐 숙연해질 때
하늘나라 영생의 길 위로 받으리

작품 해설 필자(신재문 대표)는 한센병으로 오랜 시간 병원에서 고된 외로움과 괴로움에 시달렸고 건강에 대한 소망이 매우 컸다. 앞으로 다가올 인생에서도 병원 치료 등 병마와의 싸움이 지속되지만 숙연하게 대처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시에 내포시켰다.

인생(人生)의 허무(虛無)

김종윤(익산마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쁨과 행복도 많았지만 고통과 불행도 많이 겪었다. 항상 행복만 있으면 좋으려만 가끔씩 찾아오는 고통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 있는 동안은 언제나 온다. 그러니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하늘이 준 소중한 선물이라 생각하자.

사연 없는 인생은 없다. 인생의 파도는 누구나 피할 수 없다. 가지 말라 해도 가는 세월, 오지 말라 해도 오는 백발, 우리들은 이런 고통의 순간들을 피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고통은 우리 삶의 일부다.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통의 시간들이 존재한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인생의 허무와 보람을 맞는다.

수십 년만 젊었으면 좋겠네. 세월아 가지마라, 가지를 말아라. 가려거든 너 혼자 가거라. 하늘에 뜬 구름은 바람에 가고 허무한 내 청춘은 세월에 간다. 사람은 누구나 늙는다. 아무리 발버둥 친들 흐르는 세월을 무슨 힘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 때가 되면 가는 길은 인생에 정해진 궤도가 아니겠는가? 늙는다고 너무 슬퍼할 일은 아니다. 때로는 젊음보다 늙음이 더 멋진 경우도 있다. 푸른 열매보다 익은 열매가 더욱 보기 좋다. ‘우리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유턴 없는 우리 인생, 빈손으로 떠나는 우리의 인생길은 멀기만 하구나.

봄이 오면 춘삼월에, 여름이면 오뉴월에 내 청춘 꽃피었는데, 가을되면 낙엽지고, 겨울이면 찬바람에 그럭저럭 잘도 가네. 삼사월 봄이 되면 산천초목 푸른 물결이 넘실거리다가 가을이 오면 형형색색 곱게도 물들어 바쁜 일정 뒤로 미루고 단풍구경 가는데, 우리 인생 늙으면 끈대, 할망구, 천하보다 귀한 생명, 단풍잎만 못하구나. 이쯤 되면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다.

‘백세인생’ 노래이다.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텐데 또 왔냐고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극락왕생할 날을 찾고 있다 전해라.

사람은 태어나서 다시 환생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생을 마치고 죽는다. 죽은 후의 장례 의식은 예나 지금이나 존엄성을 갖춘 최고의 문화다. 그 옛날 장례문화에서 상여는 가장 중요한 장례 기구로 발전한 의식을 기록한다. 요령잡이의 선소리에 맞춰 좌우에 각각 6명씩 총 12명 상두꾼이 후렴으로 읊는 이승과 저승을 잇는 마지막 의식의 노래 상여소리다.

울지마라 울지마라
 누구나가 가는길에
 울음으로 달래지랴
 잡는다고 말려지랴
 한번왔다 가는인생
 돌아봐도 변함없다
 어느누구 살던곳이
 고대광실 궁궐에도
 그도나도 가는길엔
 빈손으로 휘젓는다
 살아생전 고생길도
 이제보니 별것없고
 호의호식 했다해도
 옷한벌로 가는구나
 어-노 어-노
 어나리 녀자 어-노



장례문화에서 상여는 가장 중요한 장례기구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상여가 사라지면서 상여 소리도 들을 수 없게 됐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단 한 번뿐이다. 이처럼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인생은 길다고 생각하면 길고 짧다고 생각하면 짧다. 현재의 삶이 행복하면 짧게 느껴지고 불행하다고 여기면 길게 느껴진다. 우리 모두 행복한 생활하기를 바란다.

감사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시 136 : 1-26)

김 흥 수(고운마을)

지금부터 138년 전(1883년) 우리나라 선비는 상투
틀고 갓 쓰고 외국에 가던 때 조선에서 최초로 보빙
사(報聘使, 미국, 서방 등 세계에 파견된 친선 외교
사절단)를 파견하였다. 그때 우리의 세계관은 고작
중국 일본, 필리핀만 아는 때였다. 그 후 70세, 80세
를 살아온 우리는,

- ① 호롱불 세대 사람이었다. 도깨비와 귀신이 나오
고 산에서는 호랑이도 나오며 보릿고개를 넘어
야만 살았다. 전기불은 구경도 못하고
- ② 우리는 뒷간 세대 사람이었다. 뒷간이 멀어서 추
운 밤에 어린이 혼자서 무서워 못가는 세대(지금
공중 화장실은 호텔 화장실 버금가는 시대)
- ③ 우리는 우물시대 사람이었다. 공동 우물에서 양
동으로 물 길어 항아리에 채우고 그 물을 퍼 쓰
고 살았다. 수도 시설은 구경도 못하고
- ④ 우리는 가마솔 시대 사람이었다. 커다란 가마솔
에 물을 끓여
- ⑤ 우리는 손빨래 세대 사람. 100% 세탁기가 없어
추운 겨울날 개울에 나가 얼음장을 깨고 손빨래
를 하고 초가에 살면서 산에서 나무해 다 밥 짓
고 구들장 데우던 때도 있었다. 고무신이 없어

맨발로 책가방이 없어 책을 보자기에 싸서 다니
던 시절도 있었다.

- ⑥ 주판시대 ~ 전자시대 사람, 전자계산기, 컴퓨터.
TV가 있고 카드 하나로 버스와 전동차, 그리고
시장 보는 것까지 못하는 것이 없는 세상이며 시
골 할머니부터 어린아이까지 전화기를 들고 다
닌다. 옛적에 상상도 못하던 일이다.

보빙사가 미국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은 무엇인가? 고
층빌딩을 보고 놀랐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이 닫
히는 순간 철장 속에 갇히는 줄 알고 겁이나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가마 타던 사람이 기차를 처음타고
서 하는 말, 기차가 공중으로 날아가는 줄 알았다고
한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는 전기불이었다. 아무리 설명을
하여도 조선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아니했다.
불은 바람 불면 꺼지고 비가 내려도 꺼지고 부싷돌
이나 성냥불로 부치는데 전기불은 전혀 그렇지 않았
다. 연기도 없었다. 미국 대통령과 인사할 때 그들
은 서서 악수를 하는데 조선사람 보빙사들은 큰 절
로 인사하니 대통령이 놀라 일으켜 세웠다는 이야기
도 있다. 조선사람이 처음 보는 선진국의 발전 풍습

에 이것뿐이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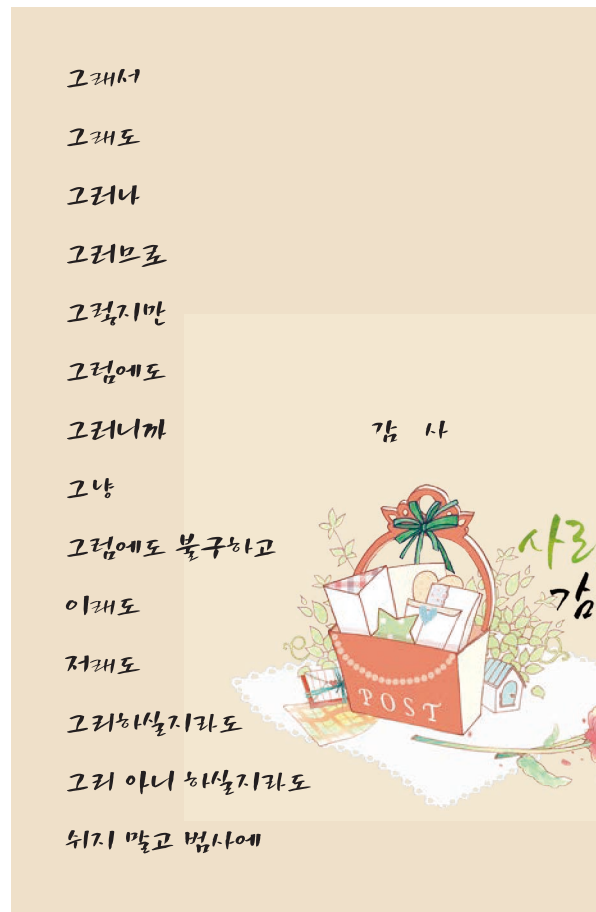
이런 우리가 복을 받아 1945년 국민소득 53달러에서 지금은 GDP 3만 1682달러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다. 공중화장실에는 미국부자들이 쓰는 비데가 설치되어 있고 주차 티켓을 뽑는 촌스런 행동은 하지 않고 우아하게 자동인식으로 주차장에 들어간다. 대중교통 카드 하나로.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로 급변하고 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 강국이 되고 치안이 확보된 나라로 세계 어느 나라 밤거리를 안심하고 관광내지 산보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 여자들이 밤거리를 자유롭게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나라는 일본과 대한민국이란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국같이 생각하는 뉴질랜드같은 나라도 해만 떨어지면 집안에서 문 잠그고 가족과 함께 집콕한다. 대한민국은,

- ① 의료가 잘된 나라, 보험제도, 병원시설, 의료진 수준, 간호사 친절. 나는 병원에 갈 때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 보험료 많이 내는 기업, 부자에게도 감사.
- ② 도로는 선진국보다 더 발전해 있다. 시골 산, 등산로까지 포장되어 있다.
- ③ 편의시설이 자랑거리다. 고속도로, 공원, 화장실을 가보면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다. 냉난방과 휴지 비치는 물론 깨끗하기가 이를 데 없고 완전 무료다. 유럽 웬만한 화장실은 돈을 내고 들어야 한다.

- ④ 먹거리가 좋은 것에 감사하다. 거리마다 골목마다 맛집이 즐비해서 낮이나 밤이나 시간, 거리 구애 받지 아니하고 식사를 즐기며 전화 한통이면 배달의 민족답게 문 앞까지 배달해 주는 나라다.
- ⑤ 여성 인권이 향상되어 각계각층에 진출하고 정치와 대통령까지 맡아하는 나라다. 국민은 1급, 기업은 2급, 경제는 3급, 정치는 4급이라고 하는데 바둑 4급만도 못한 것이 한국 정치인 것 같다. 국민의 불평이란 이것 밖에 없다. 이 문제도 감사로 바뀌지는 날이 속히 오리라. 감사하고 복 받고 살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신다고 하셨다.



“한센인 어르신들로부터 받는 교훈이 더 큼니다”

‘한센인 주치의’ 김명철 한의사



약력

(사진제공 : 뉴시스)

1982년 부산대학교 약학대 졸업
 1984년 서울대학교 약학대 석사
 1996년 부산 동의대 한의학대학 졸업
 현 제천간디공동체 대표
 현 경남 산청의료사협 이사장
 현 산청 청담한의원 원장
 현 산청성심원 촉탁의

한센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경남 산청군 산청읍 성심원에서 이들을 돌보는 주치의 김명철 (62) 한의사.

부산이 고향인 그는 28년 전 대학생 시절부터 부산의 오순절평화의마을과 한센병원이 있는 소록도를 찾아 침술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산청군 신안면에서 청담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 한의사는 28년간 지속해 온 한의 의료봉사와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21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신나고 재미 있는 일입니다. 한번도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한센인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를 만나 그에게 봉사의 가치가 무엇인지 들어보았다.

Q 안녕하세요? 간단한 한의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산청군에서 청담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명철 한의사입니다. 원래는 약사였는데, 지금은 한의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청성심원에서 2001년부터 현재까지 20년간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축탁의(학교나 회사 같은 데에서 건강 진단, 질병 치료 따위를 위촉하고 있는 의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원래는 약사라고 하셨는데, 한의사로 전향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요?

A 30년 전에 약사로 활동하면서 약을 조제할 수 있었는데, 약을 써보면 효과도 분명하지만 부작용도 분명합니다. 약사로서 그 부작용을 알면서도 환자한테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당시에 제가 한방약도 공급했는데, 한방이 재밌었습니다. 한방이 철학적인 부분도 있지 않아요? 당시 제가 동양철학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Q 산청성심원에서 한의사로 봉사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요?

A 정신과 의사 친구가 소록도에 정기적으로 봉사활동 가길래 저도 같이 따라 갔습니다.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의 삶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안좋았습니다. 당시 소록도에는 외형적으로 상태가 안 좋으신 한센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분들은 도저히 자기 발로 병원 가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당시 소록도에는 양방치료는 비교적 잘되어 있었지만 한방

치료 보급은 잘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한센인분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침 제가 부산에서 산청군으로 이사를 오면서 한센인들이 계신 곳을 찾아봤고, 산청성심원이 있다고 들어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2001년 7월에 산청군에 이사와서 산청성심원에서 2001년 8월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Q 소록도는 외형적으로 참 아름다운 곳이지만, 내면으로는 아픈 사연이 많은 점입니다.

A 네. 당시 소록도에 2박 3일 있었는데, 한센인분들 댁을 일일이 방문해서 만났습니다. 없는 형편에서도 호박을 키워서 사회복지단체에 후원을 하고 계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인데 다른 분들을 위해서 후원하시는 거에 참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센인들이 몸이 안 좋은 분들이라고 피상적으로만 알다가 그분들 삶 속에 들어가 보니 '참 따뜻한 분들이시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소록도의 역사, 한센인들의 차별의 역사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해야 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Q 그 긴 세월을 한결같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A 저는 봉사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봉사가 자연스럽게 몸에 베어 있습니다. 사실 그만두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성심원을 방문하는데, 한센인 어르

신들 뵈러 간다고 약속해놓고 어지면 말이 안 되기도 합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성심원 한의원 원장'이라고 말합니다. 원장이 그만둔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Q 한센인분들을 진료하시면서 기억에 나시는 분이나 일들이 있으실까요?

A 성심원 촉탁의다보니 사망진단서도 제 이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마음이 가장 아픕니다. 자살을 하신 분도 계신데, 그 분을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똑똑하고 자존심이 아주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저랑 말도 잘 통하고 지성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연로하시면서 눈이 안 보이시게 된 한 어르신은 “이렇게 실력 있으신 분이 와 내 눈은 안 뜨게 해주노...” 하시길래, “할머니 눈뜨게 해주면 제가 하나님과 동급이 되어서 안돼요”라고 했습니다.

또 기억에 나는 일은, 한센인분에게 약침 치료를 해드렸는데, 약침이 몸에 머무는데 그것이 화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치료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센인분들이 마사지를 참 좋아하십니다.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 불러서 어르신들 마사지 해주면 참 좋아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Q 한센인분들에게 어떻게 한방 진료를 해주고 계신지요?

A 한센인분들은 일반인들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치료하는 부분은 거의 일반인들과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연로하시다보니 중풍 치료, 소화 기능 치료, 관절 계통 치료, 특히 허리와 무릎을 많이 치료해 드리고 있습니다.



▲ 성심원을 찾아 한방진료를 하고 있는 김명철 한의사

Q 성심원에서 치료해드리는 한센인분들 수도 많이 줄었겠습니까.

A 네. 하루 20분 남짓 진료를 봅니다.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루 30분 진료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어르신 한분 한분 방문을 해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Q 봉사가 천성에 맞으신가 봅니다.

A 성향 탓 인거 같습니다. 대학 시절 봉사관련 모임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소록도, 부산 오

순절평화회의마을 봉사활동 모두 그 모임을 통해 갔습니다. 모임에서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많고 많이 만나다보니 제 성향도 그렇게 흐른 것 같습니다.

Q 간디교육공동체 대표 등을 맡아 우리나라 대안학교의 효시로 불리는 간디학교의 발전에 이바지하셨는데, 공동체 의식, 연대 의식에 중점을 두시는 것 같습니다.

A 네. 협동과 연대의 시너지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개인의 자유뿐 아니라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공유하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인격적 만남, 친밀감 있는 소통을 통하여서만 비로소 인간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Q ‘2021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으셨습니다. 소감 부탁드립니다.

A 대한민국에서 인정해준 거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상을 받고 좋은 점이 다른 사람에게 제 일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기가 좀 수월해졌습니다. 저에게 일을 맡길 때 ‘저 사람에게 일을 맡

겨도 되겠네?’라고 생각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일하기가 편해졌습니다. 사실은 이런 걸로 상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오래 한 거 밖에 없으니까요.

Q 한의사님은 언제 제일 행복하신지요?

A 다른 사람이 행복해 할 때 제일 행복합니다. 예를 들면 환자들 치료했을 때 잘 치료되어 기분이 좋고, 밥 사줄 때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1명보다는 10명, 10명 보다는 100명이랑 밥을 같이 먹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경치 보는 것보다는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Q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A 사회적 약자들, 금전적으로 지리적으로 병원에 오기 힘든 분들에게 자기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우선 그것이 첫 번째 저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산청성심원 안에 ‘경남산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현재 만들고 있는데, 이 단체를 통해서 한센인 어르신들을 매일 치료해드릴 수도 있고 운동 치료 등 다양한 활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Q 한센인분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저도 끝까지 한센인분들을 돕겠지만 당당하게 햇볕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한센인분들이 당당해질 수도 있도록 세상 앞에 당당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작은
사랑과 관심은 한센인들에게
 큰 기쁨과 희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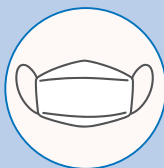
(사)한국한센총연합회는 한센인의 인권회복 및 권익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한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한센인의 사회적 수용을 촉구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소중하고
 확실한
 행동수칙**



거리를
확 띄워요!



어디서나
확 써줘요!



비누로
확 씻어요!



옷소매로
확 막아요!



밀폐·밀집·밀접
확 피해요!



감염병 궁금할 땐
확 전화해요!

정착마을 풍경

정착마을을 걷다, 보성마을

박정희 대통령 정부의 '음성환자 사회복귀 정책'의 일환으로, 당시 1,100여명의 한센인들이 생활하고 있던 여수애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음성환자로 결정된 131명이 1962년 지금의 전북 남원시 내척동 산 101번지에 자리를 잡고 마을을 이룬 것이 보성마을의 시작이다. 정착 마을 건립은 당시 여수애양원 원장인 미국인 보이열 선교사가 진두지휘하며 터를 잡고 임야 1,090,909㎡를 구입하면서 시작되었다.



바른 자세가 보약이다

경희의료원

한방재활의학과 정원석 교수

자세가 안 좋으면 우리 몸은 에너지 소모가 많아진다.
어깨가 무겁고 딱딱하고 늘 피곤하다면 자세에서 오는 전신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자세가 좋아지면 긴장이 풀리고 내장기능이 편해지면서 잠을 깊이 잘 수 있다.
보약을 먹었을 때 효과와 같은 것이다.



우리는 지구에서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 중력의 영향에 저항해 최대한 체중을 분산하고 관절의 부담이 적도록 적응한 것이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자세는 인류가 살아오면서 적응한 진화의 결과인 셈이다. 자세가 무너지고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지면 중력에 의한 체중 부하가 특정한 부위에 부담을 주게 된다. 척추를 비롯해 고관절, 무릎, 족관절 등 체중 부하를 받는 부분에 충격이 쌓이고, 작은 손상에서 큰 손상까지 이어지며 통증을 발생시킨다. 문제는 통증으로 인한 기능의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적응을 위해 우리 몸이 '통증 회피 동작'이나 '통증 회피 자세'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다시 다른 부위에 체중 부하가 쌓이면서 새로운 통증과 문제가 사슬처럼 이어진다. 근골격계 질환의 대부분이 습관성 질환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통증으로 인한 기능의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적응을 위해 우리 몸이 통증 회피 동작이나 통증 회피 자세를 만들어냅니다. 그로 인해 다시 다른 부위에 체중 부하가 쌓이면서 새로운 통증과 문제가 사슬처럼 이어지게 되죠.”

▶ 작은 통증이라도 신속하게 치료해야

근골격계의 작은 통증이라도 신속하게 치료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회피’와 ‘적응’이라는 기전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엄지발가락에 티눈이나 염좌가 생기면 우리 몸은 엄지발가락에 체중 부하를 주지 않기 위해 자연스럽게 발목을 든다. 발목의 아치가 높아지면 발목에서 무릎, 고관절, 허리와 척추까지 지그재그로 체중 부하가 생기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경미한 발가락 통증이라고 무시한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자세에 영향을 주고, 이는 무릎, 고관절, 허리, 등, 목 등 여러 부위에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이차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TIP 허리 통증 줄이는 메켄지 운동법



기립 운동

허리에 손을 댄 뒤 몸을 뒤로 젖힌다.
코로 숨을 들이쉬고 멈춘 상태에서 5초간 유지한 뒤, 입으로 숨을 내쉬는 동작을 반복한다.

엎드려서 위로 밀기

- ① 엎드려서 양팔을 몸에 붙이고 깊게 숨을 내쉰다.
- ② 골반을 바닥에 붙이고 허리와 배를 아래로 늘어뜨린 상태에서 천천히 상체를 위로 밀어 올린다.
- ③ 통증 없이 허리에 시원함을 느꼈다면 양팔을 편 상태로 상체를 지지하며 들어 올려 준다.



골반 비틀림, 하지길이 불일치, 거북목, 보행 이상 등 자세와 관련된 통증과 움직임의 제한으로 병원을 찾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또한 척추의 마디 사이에 긴장이 유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긴장된 척추 마디에서 나오는 척추신경이 예민해져서 각각의 신경이 지배하는 부위의 피부 근육, 힘줄, 인대 등 관절과 관절 주위 조직들을 예민하게 만든다. 즉, 근육은 쉽게 굳어지고 통증은 예민해지며 연관된 내장기능 및 해당 부위의 혈액순환도 좋지 않게 된다. 오래된 통증과 연관된 습관화된 자세 및 움직임의 문제는 운동 등의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바꾸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습관과 연관된 근육의 짧아짐이나, 관절 주위 인대의 경직 등에 의한 관절의 가동범위 제한은 근이완제, 진통제 등 약물복용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다. 의사의 도움을 받아 추나 등의 적절한 치료를 통해 관절 가동범위



와 기능을 회복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약한 부위를 강화하고 긴장된 부위를 이완시켜주는 운동이나 생활습관 관리 등을 통해 중력에서 잘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자세의 적응을 끌어낼 수 있다.

▶ 통증 질환의 최종 목표는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키는 것

좌식 위주의 일상에서 통증을 줄이고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메켄지 운동’이다. 신전운동이라고도 하는 이 운동법은 오래 앉아서 생기는 몸 앞쪽 근육의 수축을 이완시켜주는 운동이다. 자세에 의한 통증 질환의 최종 목표는 중력에 저항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키는 것이다. 움직일 때나 움직이지 않을 때 모두 관절의 특정 부위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세와 관련된 통증 질환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맞춤의학의 특징이 있는 진료 분야이다.

통증이 생겼을 때 단순히 진통제로 해결하기보다 통증이 왜 생겼는지, 신체 특성과 자세, 생활 습관에서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노력을 뒷받침해야 한다.





출근길 찬 바람에 눈물이 주르륵? 안구건조증 원인 및 예방법

‘겨울이 되니 눈이 더욱더 뻑뻑하고 건조하다?’

‘찬바람을 맞으니 눈물이 주르륵?’



이렇다면 안구건조증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춥고, 건조할수록 더욱 심해지는 안구건조증... 어떻게 예방할까요?

◆ 안구건조증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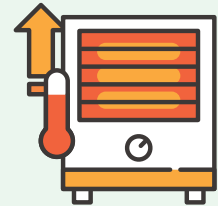
체내에서 생성되는 눈물이 부족하거나 눈물이 과도하게 증발해 생기는 질환입니다.



◆ 겨울철에 증가하는 이유?

추운 겨울철, 매서운 바람이 각막에 닿으면 눈물이 증발해 건조해지고 실내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하면 실내 습도가 낮아져 공기가 더욱 건조해져 안구건조증이 유발됩니다.

또한, 자주 환기를 시키지 않아서 실내의 오염된 공기도 눈을 자극합니다.



◆ 안구건조증 증상

- ✓ 눈이 뻑뻑하고 따갑고 이물감이 느껴짐
- ✓ 충혈과 눈시림
- ✓ 눈 피로도 증가
- ✓ 시야가 뿌옇게 보이기도 함
- ✓ 찬바람을 쐬면 눈물이 흐름
- ✓ 심하면 가려움증 호소



◆ 안구건조증 예방법

- ▽ 실내온도 18~22도 유지
- ▽ 히터바람 직접 쐬지 않기
- ▽ 가습기를 이용해 약 60% 적정 습도 유지
- ▽ 환기 자주하기
- ▽ 눈에 인공눈물로 수분 보충
- ▽ 눈 자주 깜빡이기(일반적으로 1분에 약 15회 ~20회 정도 눈 깜빡임)



◆ 눈에 좋은 음식 섭취

- ▽ 노안예방 : 등푸른생선
- ▽ 시력보호 : 김
- ▽ 시력유지 : 시금치
- ▽ 눈피로회복 : 블루베리
- ▽ 망막보호 : 꽃게
- ▽ 비타민A 풍부 : 당근, 계란
- ▽ 눈떨림증상완화 : 견과류
- ▽ 눈을 밝게 : 결명자차

‘안구건조’ 큰병 아니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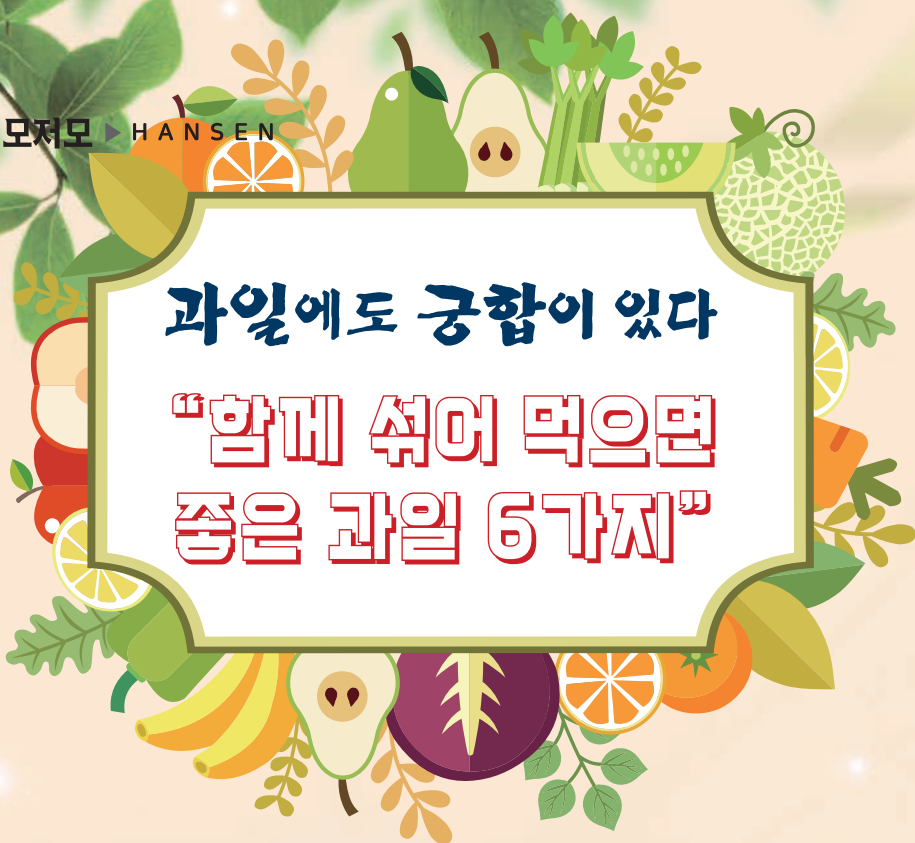
흔히 들어본 질환이어서 증상이 있음에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구건조증은 눈의 노화를 촉진하고 두통과 피로, 각막손상 유발, 심하면 시력저하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눈물이 나고 시리고 뻑뻑하다면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눈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면서 소중한 우리의 눈을 보호해주세요.





과일에도 궁합이 있다
“함께 섞어 먹으면
좋은 과일 6가지”

새콤달콤한 과일은 언제 먹어도 맛있는데요.
 특히 궁합이 좋은 과일들끼리 섞어 먹으면 영양소 흡수가 더 잘 돼서
 시너지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섞어 먹으면 좋은 과일 궁합을 알려드립니다.



▶ 파인애플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브로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해 소화가 잘되게 도와줍니다. 복숭아는 식이섬유의 일종인 ‘펙틴’이 들어 있어 두 과일을 함께 섭취하면 장기능이 활성화돼 소화능력이 배가 됩니다.



▶ 바나나에는 ‘행복호르몬’ 세로토닌이 숙면을 유도하고 복숭아의 아미그달린 성분이 신경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 ▶ 바나나에는 비타민A, C, E 등이 함유돼 있고, 딸기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함께 먹으면 피부 미용에 효과적입니다.



- ▶ 사과와 키위에는 펙틴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어 장기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해 정상 효과가 있습니다. 특유의 신맛으로 입맛까지 돋워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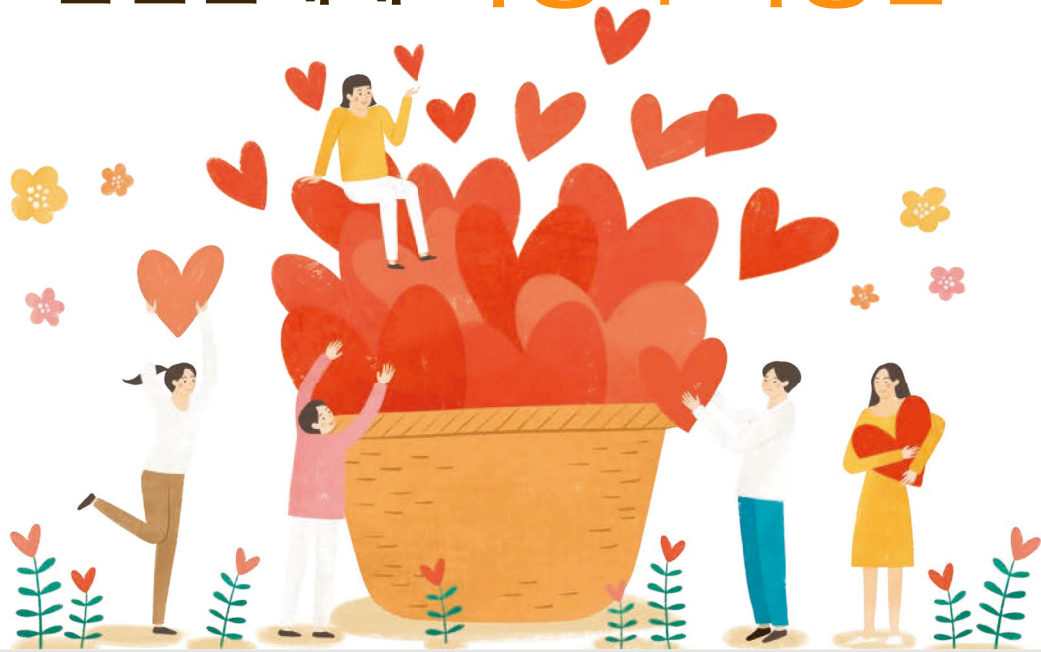


- ▶ 멜론과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줘서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이 먹으면 좋은 과일조합입니다.



- ▶ 오렌지와 망고는 비타민A, C가 풍부해 면역력 강화 및 피부미용에 도움이 됩니다. 오렌지의 신맛과 망고의 달콤함이 잘 어우러집니다.

한센인에게 사랑과 희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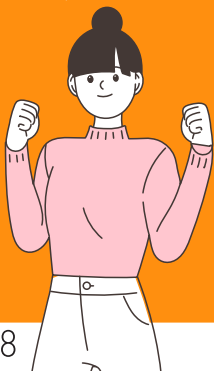
한국한센총연합회의 후원자가 되실 분을 찾습니다

후원자 여러분들이 베풀어주신 사랑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한센인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부금 지정 단체인 한국한센총연합회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후원 방법** 계좌 송금 및 물품 기부를 위한 문의 또는 홈페이지 후원접수
- **후원 기간** 상시
- **후원 계좌** 국민은행 433401-01-330682 (사)한국한센총연합회
※ 입금 후 연락 바랍니다.

Q&A



- Q** 후원관련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A Tel. 02-1566-2339로 연락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후원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A www.hansenkorea.org 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 Q** 카카오톡으로 문의 가능한가요?
A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 후 채팅으로 문의주세요.
(아이디 : 한국한센총연합회)

♪ ♪ ♪ ♪
땡 동 땡 동
약 복용 시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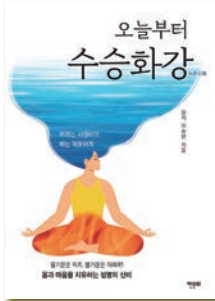


개인별 권고 처방에 맞춘

올바르고 꾸준한 약 복용,
내 몸과의 약속입니다.



“ 요즘 이책 ”



오늘부터 수승화강 머리는 시원하고, 배는 따뜻하게!

이승헌 지음 | 한문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삶을 바꾼 자연치유의 권위자
이승헌 총장이 전하는 궁극의 건강 원리, 수승화강!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100세 시대가 당연해진 지금, 건강과 웰빙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게다가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그동안 믿고 의지해왔던 사회적 시스템이 생각보다 훨씬 취약하다는 것을 실감하며,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자각을 하고 있다. 세계적인 명상가이자 뇌교육자로 지난 40여 년간 다양한 심신수련법을 개발해온 저자는 머리말에서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전 세계인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떨치고 스스로 자기 몸과 마음을 지키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이 책을 집필했다고 밝힌다. "어떻게 하면 내 몸과 마음을, 더 나아가 자연과 지구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동안 개발해온 수많은 심신수련법을 꿰뚫는 궁극의 건강 원리로서 '수승화강'을 제시한다.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자 명상의 원리이기도 한 수승화강을 통해 에너지 순환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생활습관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한다.



하버드 지혜 수업 78가지 사례로 배우는 행복과 성공을 위한 연금술

무천강 지음 | 정은지 옮김 | 리더리드출판

하버드 출신의 성공한 사람들이 꼭 알려주는 것들
행복과 성공을 부르는 연금술

마침내 삶의 변화를 끌어낼 수만 가지 이야기
하버드 출신의 성공한 이들이 찾은 인생 깨달음

누구나 잘살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지만 산다는 건 녹록지 않다. 삶의 고비마다 마음이 꺾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불안감과 막막함이 엄습할 때가 많다.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아주고 어디로 가야 할지 불빛을 비춰주는 등대 같은 존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책은 성공한 이들이 겪은 숱한 삶의 에피소드에서 찾아낸 인생 지혜의 정수를 담고 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부터 성공에 이르는 길까지 흥미진진한 실제 사례를 통해 깨달음을 선물한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공을 이뤄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범한 이들과 무엇이 다를까? 우리는 어떻게 성공한 사람의 자질을 갖출 수 있을까? 자녀들을 어떻게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까? 그 답은 당연히 성공한 사람에게서 찾아야 할 것이다.

저자는 오랜 기간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셀 수 없이 많은 실제 사례를 모으고 정리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유명 인사뿐만 아니라 번뜩이는 인생 지혜를 깨닫게 하는 평범한 이들의 에피소드를 포함했다. 특히나 이 책은 무척 재미있어서 일단 펼치면 손에서 놓기가 힘들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녀에게, 되는 일이 없다고 불평하는 친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불안한 자신에게 이 책은 반짝이는 지혜를 선사해 극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자료 제공 : 교보문고

이 달의
사자성어

除 舊 布 新
제 구 포 신

[除]버릴 제 [舊]옛 구 [布]펼 포 [新]새 신

바로 뜻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친다는 뜻의 사자성어이다. 그릇된 것이나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하는 쇄신과 개혁을 강조할 때 쓰인다. 하늘에 뜬 혜성을 낚은 것을 쓸어내고 새로운 것을 내놓는 별이라고 본 고사에서 유래한다.

깊은 뜻 / 유래

제구포신의 출전은 《춘추좌전(春秋左傳)》〈소공십칠년(昭公十七年)〉이다. 노(魯)나라 소공(昭公) 17년 겨울에 하늘에 혜성이 나타나자, 노나라의 대부(大夫)인 신수(申須)가 “혜성은 (모양이 빗자루를 닮아) 낚은 것을 쓸어내고 새로운 것을 내놓는 별이다. 천문의 현상은 항상 길흉을 상징하는 법이다. 따라서 지금 혜성이 대화(大火)라는 별을 쓸어냈으니 대화가 다시 나타날 때는 반드시 재앙을 뿌릴 것이므로 제후국에 화재가 있을 것이다(彗所以除舊布新也 天事恒象 今除於火 火出必布焉 諸侯其有火災乎).”라고 말한 데서 유래한다. 고대인들은 대체로 혜성을 대이변을 몰고 오는 불길한 징조로 보았으나, 이와 같이 낚은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내놓고자 하는 조짐으로도 해석하였다.

한편, 《교수신문》은 새해에는 지난 대선이 한국 사회에 남긴 생채기를 보듬고, 낡은 정치, 낡은 의식, 낡은 가치가 청산되어 새로운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2013년 희망의 사자성어로 제구포신을 선정하였다.

자료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이렇게 사용하세요!

“제구포신의 뜻처럼 새로운 환경에 맞게 묵은 관습을 탈피하고 발전과 새 희망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매진합니다”

중국어

교실

기념일,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

단어

- | | |
|------------------------------------------------|-----------------------------------|
| 1.元旦 [Yuándàn / 위엔단] 신정 | 6.儿童节 [Értóngjié / 얼통지에] 어린이날 |
| 2.春节 [Chūnjié / 춘지에] 설날 | 7.教师节 [Jiàoshī Jié / 지아오쓰지에] 스승의날 |
| 3.情人节 [Qíng rén jié / 칭런지에] 밸런타인데이 | 8.佛诞节 [Fó dān jié / 푸단지에] 석가탄신일 |
| 4.白色情人节 [Báise qíng rén jié / 바이쓰어 칭런지에] 화이트데이 | 9.中秋节 [Zhōngqiūjié / 쑹치우지에] 추석 |
| 5.愚人节 [Yúrénjié / 위런지에] 만우절 | 10.万圣节 [Wànshèngjié / 완성지에] 할로윈데이 |
| | 11.圣诞节 [Shèngdànjié / 썩판지에] 성탄절 |

날 말 퀴즈

1				
				2
3		4		
		5		

가로힌트

1. 다정하고 금실이 좋은 부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원앙 부부'로 순화.
3. 한센인 및 국가한센사업을 홍보하고, 한센인 간 친목 교류 및 화합의 장 제공, 한센인의 삶과 역사 재조명 및 한센 가족의 인권과 복지 증진에 공헌한 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행사. (힌트 : 본지 4페이지)
5. 산삼을 캐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세로힌트

2. 우리나라 명절의 하나. 정월 초하룻날이다.
3. 한국의 중부, 강원도 · 충청북도 · 경기도 · 서울특별시를 거쳐 서해로 유입하는 강.
4.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마음.

| 지난호 정답 |

	대	통	령	
오				간
합	동	결	혼	식
지		승		
줄		전	문	가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지난호 당첨자 : 이*재, 신*하

| 참여방법 |

우편, 이메일, 총연합회 카카오톡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 우편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아이리스빌딩 2층 (사)한국한센총연합회 한센지 담당자 앞
- ◆ 메일주소 : hansen@hansenkorea.org
- ◆ 카카오톡 : '한국한센총연합회'로 검색 및 채널 추가 후 정답 전송
- ◆ 보내실 내용 : 성함, 주소, 휴대폰 번호, 정답(정답이 기재된 사진 또는 종이)
- ◆ 문의전화 : 02)1566-2339 (정답은 다음호에 실립니다)

| 한센 게시판 |

한센인(병) 관련 유물을 찾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기념관 건립·운영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은 한센인 또는 한센병 관련 유물을 기증(서약)받고 있습니다.

-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
- 한센시설(병원) 생활용품 또는 기록
- 한센가족 후원 또는 봉사 관련 자료
- 한센가족 작품(문학, 미술, 음악, 사진 등)
- 기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한센인과 함께 만드는 종합정보소식지 '한센'

원고 모집 공고

- 응모 대상 : 제한없음
- 응모 기간 : 상시접수
- 원고 내용 및 분야
 - ★ 한센인 관련 미담, 에피소드, 봉사 수기
 - ★ 한센인 창작 또는 한센인 소재 문학 : 시, 소설, 수필 등 제한없음
 - ★ 한센인의 생활현장, 민원 등 지역 소식
 - ★ 한센인 관련 정책·학술·역사 자료
 - ★ 한센인 관련 다양한 분야의 칼럼
 - ★ 기타 「한센」 게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원고
- 응모 방법
 - ★ 제출처 : 총연합회 한센지 담당자
 - ★ 전화문의 : (02) 1566-2339
 - 우편제출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2층
 - 팩스제출 : (02) 1566-2032
 - 이메일제출 : hansen@hansenkorea.org



한국한센총연합회의 후원자가 되실 분을 찾습니다

사단법인 한국한센총연합회는...

한센인의 인권회복 및 권익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한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한센인의 사회적 수용을 촉구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한센인에게 사랑과 희망을!

후원자 여러분들이 베풀어주신 사랑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언제나 따뜻한 사회,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사)한국한센총연합회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사)한국한센총연합회 후원회장 김정남

후원계좌 국민은행 433401-01-330682 한국한센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한센총연합회 중앙회 및 지부 주소

중 앙 회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2층 TEL.1566-2339 FAX.1566-2032
서울·중부지부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19길 10-20(방배동 202호) TEL.(02)532-6777 FAX.(02)532-9050
부 산 지 부	부산시 서구 구덕로 124번길 3 TEL.(051)245-8207 FAX.(051)245-8206
인 천 지 부	인천시 부평구 서달로 298번길 60 TEL.(032)515-5501 FAX.(032)515-5504
경 기 지 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총장로 11 402호 TEL.(031)973-5329 FAX.(031)973-3178
전 북 지 부	전북 김제시 갈공길 21 TEL.(063)542-7822 FAX.(063)545-7820
광주·전남지부	광주시 북구 벼들로 23 동방빌딩 3층 TEL.(062)524-3485 FAX.(062)524-3484
대구·경북지부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4길 5 TEL.(054)971-8975 FAX.(054)977-8975
울산·경남지부	경남 함안군 군북면 방어산로 618 TEL.(055)584-4333 FAX.(055)584-4332

‘한센’ 편집 자문위원

위 원 장	우홍선(사무총장)
위 원	박영립((재)화우공익재단 이사장), 신재균(법무법인 서해 변호사), 옥춘광(작가)
기 획	석자현

(사)한국한센총연합회 소개

(사)한국한센총연합회는...

1969년 10월 13일 발족되어 한센인의 인권회복 및 권익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한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한센인의 사회적 수용을 촉구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핵심가치

HARMONY
HOPE
HAPPINESS

한센가족과 국민 모두의 소통을 통한 **편견 해소**
한센가족의 사회통합과 재활에 대한 **소망 실현**
전 세계 한센가족의 인권과 **복지 증진**

★ 비전 ★

- 차별과 편견이 없는 행복사회 실현
- 한센사업의 역할 모델로 위상 제고
- 한센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구축
- 한센사업 전문기관으로 역량 강화

★ 미션 ★

- 한센인의 보건 복지 증진
- 한센인의 권익 보호 강화
- 한센인의 사회 통합 지원
- 한센인의 인권 신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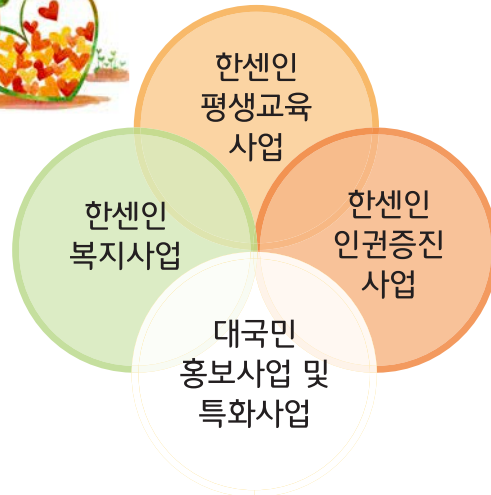


★ 사업목표 ★

- 한센인 관련 법, 제도 등의 개정 및 제정
- 한센인의 보건복지 등 삶의 질 향상
- 한센 관련 단체와 연대 강화
- 한센인(병)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교육 홍보
- 한센인 권익 증진
- 한센인 사회 통합 지원
- 미래지향적인 한센정책 수립
- 국제 교류 협력 확대
- 한센인피해사건 기념관 건립
- 한센 관련 정책을 통한 주도적 위상 제고



★ 사업소개 ★



★ 로고 ★



한센가족(hansen)을 상징하는 'h'로 한센가족과 국민 모두가 눈높이를 맞춰 소통으로 하나되고 대한민국 한센사업의 통합과 한센가족의 희망찬 미래와 행복 실현을 위한 열정을 형상화함

| 총연합회 공식 SNS 채널 |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지구의 모든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안식처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서 이제 평화로운 삶을 누리십시오.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서는 고령한세인을 위한 노인 친화적 환경의
 무료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네트워크로 고령한세인의 정서와 문화 그리고 공감을 포괄할 수 있는
 전인적 관점의 사회통합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

사례관리
 인권개선운동
 재활·치료 프로그램



지역사회교류 활성화

지역사회 기여 실천
 보편적 협력기관 확대
 긍정적 환경마련



노후생활 안전보장

1:1 개별 서비스
 요양·보호·여가 지원
 안정적 생활환경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EVERGREEN WELFARE CENTER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산2길 116-15 | TEL : 043) 241-1300 / FAX : 043) 241-1302
 E-mail : egwc1300@egwc.or.kr | 홈페이지 : http://www.egwc.or.kr